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요청대상 행위	<input type="checkbox"/> 시스템 DISK 장애예방을 위해 DISK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정보(불량, 스토리지 이상신호 등)를 별도 서버에 수집하여 외부의 DISK 제조업체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망분리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input type="checkbox"/> 요청대상 행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이유	<div style="margin-bottom: 10px;">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해킹 방지를 위해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이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전자금융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업무상 불가피하게 특정 외부기관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은 망분리 예외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li> </ul> </div> <input type="checkbox"/> 시스템 DISK의 이벤트 정보를 수집하여 제조업체로 전송하는 것은 전자금융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업무상 불가피하게 특정 외부기관에 연결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제2항 참조)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